

# 나는 지난달 사서가 읽은 책을 알고 있다

고양시 도서관 사서들의 추천도서

새해 다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독서’.  
아직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고양시 도서관발굴단이 나섰다.  
독서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불어 넣어줄 책을 소개한다.  
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GOYANG PUBLIC LIBRARY

## 도서발굴단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도서발굴단  
바로가기



###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김민섭 | 출판 창비교육  
#지옥의\_공리주의자가\_추천합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어.”  
거창한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내가 하는 짓에 뭐라도 쓸모가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이사회할 때 어디선가 굴러 나오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지우개 같은 나. 나는 짐 포장을 다 끝낸 후 나와선 쓰레기봉투를 무겁게 하는 정도의 쓸모만 있는 걸까? 내 글은 데이터를 잡아먹고 탄소 발자국을 늘리고 무고한 나무를 희생시킬 뿐일까? 적어도 어떤 글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

“ 타인과 연결될 수 있고 타인에게 쓰임이 있는 ”  
무언가가 내 몸 안에 존재한다.  
그 순간, 나의 몸은 더이상 먼지가 아니었다.



###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저자 김영민 | 출판 어크로스  
#아무진\_세미집순이가\_추천합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의 담당 과목도 좋아진다고 했다. 책을 고를 땐 매번 300번대 사회과학 서가에서 얼쩡거리는 내가 있었지만 정치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도 열정도 없는 나도 있었다. 이런 사람이 유독 좋아하는 작가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라니. 어디에나 정치가 있다는데, 나의 삶은 은연중에 정치가 있는 길을 피해 다닌 걸까? 말마따나 세상에 혼자 그냥 잘 되는 일은 없다면 어디 한 번 귀찮음을 무릅쓰고 정치가 있는 곳, 문제를 고민하고 균형을 잡아보려는 곳으로 가려고 애쓸 것이다. 누가 보기에 참담한 것도 안타깝기에.

“ 어떤 선망하고 욕망할 것이 있기에 사람들은 ”  
귀찮음을 이기고 세상에 나와 그 욕망의 대상을 쫓는다.  
마침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정치가 필요해진다.



###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저자 에릭 와이너 | 출판 어크로스  
#천사소녀\_답정너가\_추천합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는 수많은 순간마다 이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많은데 그 순간에 책을 펼쳐보면 내 생각을 명확히 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책으로 기차여행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부터 루소처럼 걷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까지 14명 철학자의 가지각색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선택의 순간,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타보자.

“ 스토아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두라



### 해가 지는 곳으로

저자 최진영 | 출판 민음사  
#무채색\_레드벨벳이\_추천합니다

“ 먼 나라에서 기괴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  
멀망하고 있는 세계에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수많은 스토리는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가족과 나라를 잃고 귀신보다 인간이 무서워진 세상에서 ‘현재에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나는 내 사람들에게 충실한가? 오늘날만큼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안부를 한 번씩 더 들여다보는 행복을 느껴보길.

“ 과거를 떠올리며 불행해하는 대신, ”  
좋아지길 기대하며 없는 희망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대신 지금을 잘 살아 보려는 마음가짐.